

담론의 힘과 주체의 포이에시스

—『당신들의 천국』론

이 하 은*

요약

본고는 『당신들의 천국』에 놓인 공동체의 문제를 담론과 주체의 관계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당신들의 천국』의 서사 중심에 놓인 조백헌은 인간다운 삶의 해방을 위해 주체가 어떠한 위치에 놓여야 하는가를 사유하기 위한 인물이다. 서사가 진행되며 조백헌은 견고하고 독선적인 이성에서 자기동일성을 허무는 주체로 변모한다. 이러한 주체의 변모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담론의 기능과 힘이다. 『당신들의 천국』에서 담론은 타자 통치를 위한 권력의 원천이기도 하며 자기 통치를 통해 윤리적 실천을 이끌어내는 기제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담론의 힘은 주체와 어떻게 결부하는가에 따라 삶의 억압 또는 해방이라는 극단의 축을 향한다. 조백헌은 소록도를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기획을 위해 담론의 힘을 활용해 타자를 통치하는 면모를 보인다. 천국담론의 허상을 일깨우는 원생들의 탈주선 그리기에도 조백헌은 부동하는 주체의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조백헌은 이상옥의 편지를 통해 독선적인 허물을 깨닫고 자기동일성을 허물게 된다. 주체의 자기인식을 이끌어내는 진실의 담론은 이렇게 자기동일성을 허물고 주체를 윤리적 삶의 실천으로 이끈다. 『당신들의 천국』은 조백헌을 통해 도래해야 할 공동체를 위해 주체가 군림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동일성을 무너뜨리는 자기 포이에시스를 실천해야 함을 말한다. 자기의 포이에시스는 자기동일성을 다시 세우려는 욕망과 끝없이 싸우는 어려운 실천이다. 『당신들의 천국』은 이상옥의 일관된 비판자의 시선을 통해 주체의 동일자 욕망을 끝까지 경계한다. 이는 아직은 이뤄지지 않은 공동체의 도래가 낙관적인 이상주의로 빠질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또한 인간다운 삶의 자유를 위해 주체와 타자의 자기반성과 실천이 부단히 이어져야 함을 말하기 위함이다.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담론, 타자 통치, 자기 통치, 주체, 도래할 공동체, 자기의 포이에시스

목차

1. 서론
2. 권력의 담론과 천국의 영토화
3. 허상의 담론과 이탈의 움직임
4. 진실의 담론과 자기동일성 허물기
5. 결론

1. 서론

문학은 사회의 일부를 형성하면서도 그것에 저항하는 담론이다. 이는 문학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위해 선택하는 전략이다. 이청준은 이러한 문학의 방식을 교묘하게 활용한 작가이다. 그는 현실에서 동떨어져 보이는 관념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 스며든 권력의 문제를 탐구한다. 그의 소설은 인간의 비밀을 파헤치며 인간을 억압하는 힘의 원리를 가시화한다. 게다가 베일에 쌓인 내력을 추적하는 과정에 중점을 둠으로써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삶을 반성하게끔 유도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청준의 소설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관념소설이라는 평을 받기도 한다. 『당신들의 천국』¹⁾은 여타 이청준의 작품과 달리 실존하는 모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는 『당신들의 천국』을 한국사회의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실마리로 작용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신들의 천국』이 주체와 타자, 그리고 공동체의 형태에 대한 이청준의 사유를 실험한 문학의 공간이라는 점이다. 『당신들의 천국』은 제목에서부터 공동체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는

1) 본고는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간된 이청준 전집 『당신들의 천국』(2017)을 텍스트로 삼고 있다. 이후 본문에서 텍스트를 인용할 때에는 면수를 표시하는 것으로 하겠다.

섬 외부에 위치한 ‘당신’들이 조성한 천국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원생 ‘당신’들만의 것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당신들의 천국』은 우리에게 만연한 공동체 의식을 경계하면서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공동체의 형태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다.

『당신들의 천국』은 사회에 큰 파급력을 일으킨 문제적인 소설인 만큼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 방향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당신들의 천국』을 알레고리로 접근한 연구²⁾이다. 이는 소록도를 1970년대 정치상황과 결부하여 치자와 피치자의 관계를 비판하는 것에 주목한다. 둘째,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천국의 가능성에 초점을 둔 연구³⁾이다. 이는 자유와 사랑의 화해에 주목하며 유토피아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셋째, 『당신들의 천국』의 서사구조에 집중한 연구⁴⁾이다. 이는 『당신들의 천국』에 다층적으로 나타나는 서사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낙원의 도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넷째, 『당신들의 천국』을 윤리적 소통의 문제로 바라본 연구⁵⁾이다. 이는 소통이 불가능한 타자인 소록도 원생과 조백현의 관계에 주목하여 타자 윤리의 문제를 분석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각기 다른 방면에서 접근하지만 그 중심에 주체와 타자, 즉 공동체의 문제가 놓여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본고 역시 『당신들의 천

2) 김현생,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정치적 알레고리 읽기』, 『한국사상과 문학』 63, 2012, 83-105면.

배경열,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알레고리 고찰』, 『배달말』, 2010, 143-168면.

3) 류양선, 『낙원에의 꿈과 관념의 정치학-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론』, 『성심어문논집』, Vol.20, 1999, 59-80면.

박미정, 『『당신들의 천국』에 부재한 유토피아』, 『청람어문교육』 Vol.28, 2004, 339-363면.

홍웅기, 『소설적 자유와 욕망의 실천가능성-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Vol.51, 2012, 439-457면.

4) 마희정,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서사구조분석』, 『현대소설연구』 21, 2004, 323-345면.

문재호,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동일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1997, 371-400면.

5) 김근호, 『이청준 소설 『당신들의 천국』의 소통 윤리』, 『구보학회』 Vol.13, 2015, 177-205면.
설혜경, 『〈당신들의 천국〉에서의 이웃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64, 2016, 251-286면.

국』을 독해하는 데에 공동체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다만 본고는 주체와 타자의 역학 중심에 놓인 ‘담론’의 기능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담론은 공동체의 형태를 사유하는 주체의 인식과 통치의 기술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기제이다. 이는 주체의 인식을 형성하는 힘을 지니며 그것의 실천은 타자에 대한 윤리로 이어진다. 『당신들의 천국』은 조백헌을 통해 담론이 타자 통치의 수단 혹은 자기인식과 타자를 향한 주체로 변모하는 양가적 힘을 지님을 드러낸다. 이는 이청준의 소설 전반에 나타나는 말에 대한 사유 속에서 『당신들의 천국』을 새롭게 읽는 지점이 될 것이다.

『당신들의 천국』은 이상적인 공동체의 도래를 위해 원장과 원생 모두의 인식변화가 필요함을 말하면서도 조백헌을 서사 중심에 둔다. 이는 바람직한 공동체를 이룩하는 데에 ‘나라는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기 위함이다. 공동체와 주체의 문제를 사유하는 중심에는 담론의 힘이 자리한다. 『당신들의 천국』 1부와 2부에서 담론은 배제와 분할을 생산하는 타자통치의 기술로 기능하는 반면 3부에서는 주체의 반성을 일으키는 자기통치의 기제로서 기능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당신들의 천국』의 나타난 담론과 주체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우선 담론이 배제와 분할을 통해 천국을 영토화하며 주체의 권력을 생산함을 논할 것이다. 이후 담론의 권력이 불변하는 진리가 아니라 허상임을 간파하는 소록도 탈출사고를 탈주의 힘으로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담론의 허상에도 독단적인 주체 ‘조백헌’의 자기인식과 타자로의 개방을 이끌어내는 이상옥의 편지를 진실의 담론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그것이 도래할 공동체를 위해 윤리적 삶을 실천하려는 주체의 포이에시스로 연결됨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권력의 담론과 천국의 영토화

담론은 말 속에서 무한히 증식하며 퍼져나가는 힘이 있다. 이러한 담론의 힘은 권력과 결부할 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당신들의 천국』은 소록도를 통해 담론이 권력으로 기능할 때 지니는 막대한 과급력을 파헤친다. 소록도는 ‘특별한 처지의 인간 집단’을 일정 구역에 수용하는 ‘꾸며진’ 낙원이다. 권력은 이러한 분리와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담론을 통해 소록도의 ‘천국’ 이미지를 생산한다. 담론이 만들어내는 “이기적인 소문”(179면.)은 허상과도 같은 소록도의 낙원이 실제로 존재하듯이 포장한다. 이로써 소록도는 권력의 담론 속에서 배제와 분할의 공간으로 영토화된다. 이렇게 『당신들의 천국』은 소록도를 천국 이미지로 탈바꿈하여 배제하는 담론의 권력에 주목한다.

담론은 권력이 통제하고 생산하려는 비가시적인 틀을 실행하는 힘을 지닌다.⁶⁾ 이는 권력의 통제 하에 생산되며 그 힘을 통해 배제와 분할의 산물을 영토화한다. 소록도의 낙원 이미지를 지탱하는 담론은 섬 외부자로부터 생성된다. 주정수 시대에 시작한 낙원사업은 아름다운 섬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낙원으로서의 소록도를 지탱하는 담론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 먼저 담론은 섬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여 그곳을 신비화한다. 이는 소록도 실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곳이 원생들의 지상낙원인 것처럼 아름답게 꾸미는 기능을 한다. 이는 외지인이 소록도를 바라보는 이미지를 결정하고 그들이 섬의 내력을 알기 전까지 그곳을 아름다운 환상으로 재생한다. 여류 화가의 일화는 소록도 실상을 알지 못하는 타지인에게 그곳이 얼마나 매혹적인 환상으로 자리하는지를 보여준다. 화가의 일화는 소록도를 비애가 서린 낙원으로 신비화하며 그곳의 아름다움을 한층 강화하는 담론이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록도

6) 미셸 푸코, 『담론의 질서』, 이정우 해설, 새길, 2011, 21면.

를 슬프지만 아름다운 섬으로 기억하게끔 하여 그것이 진실처럼 작용하도록 한다.

오래전에 어떤 멋진 여류 화가 한 사람이 이 섬을 찾아온 일이 있었다. 여류 화가는 섬을 찾아와서 한 가엾은 소녀를 만났다. 소녀의 어머니는 병을 얻어 이 섬으로 들어와 세상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 어머니를 섬으로 떠나보낸 소녀는 두고두고 그 어머니를 잊을 수 없었다. 얼마 후 그녀는 간호사가 되어 자신도 어머니를 따라 섬으로 들어왔다. (중략) 슬픈 이야기였다. 그러나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화가의 개인전이 열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녀의 눈동자에서 아름다운 섬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소녀와 섬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다. 아름다운 소녀여! 사랑스런 소녀여! 그리고 소녀의 섬이여! 그들에겐 섬이 꿈처럼 아름다웠다. 사람들에게겐 이곳이 바로 그 소녀의 섬이었다.(21-22면.)

담론은 기호로 표현되고 그 말에 의해 가시적이게 된 사유기이다. 여류 화가의 일화는 소녀의 형상에서 사람들이 찾아내야 할 가치를 미리 규정한 담론이다. 그녀의 그림은 형상을 활용하여 담론을 표현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림은 그 속에서 찾아야 할 의미 구조를 지닌 담론의 변이형이다. 예술의 기호는 비물질성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무한히 증식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소녀의 그림은 그것의 내력과 결합되어 감각의 기호를 물질적인 차원에 가두어 버린다. 화가의 그림이 ‘아름다운 섬 이야기’로 재생되는 것은 그것의 내력을 가시화하는 기호이기 때문이다. 그림의 형상이 물질성을 지닌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이에게 일으키는 지성의 과정은 동일하게 작용한다. 감각적인 기호들은 우리에게 그것이 소유하는 의미를 찾도록 강요한다.⁸⁾ 우리는 기억에 기대어 그 기호가 우리에게

7) 미셸 푸코, 위의 책, 35면.

8) 질 들뢰즈,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동욱·이충민 역, 민음사, 2018, 61면.

다가온 의미를 해독하곤 한다. 그림 속 ‘소녀의 눈동자’는 그것을 보는 자에게 아름다움이나 사랑의 감정이 솟어나게 하는 형상이다. 그것이 아름다움 혹은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은 소녀 그림에 관련한 과거 기억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녀의 눈동자’에서 과거에 들었던 여류 화가의 담론이 떠올라 그 형상과 결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류 화가의 일화는 소록도를 헌신과 사랑이라는 가치로 표상하는 담론이다. 그림의 내력으로 인하여 ‘소녀와 섬’이라는 예술 기호는 ‘아름다움’이라는 동일한 의미로 확산된다. 이로써 소록도는 외부인의 마음속에 ‘소녀의 섬’이자 윤리적 가치가 넘치는 환상으로 자리잡는다.

탈출 사고를 조사하던 조백헌은 ‘커다란 공원’과 같은 소록도를 아름답고 평화롭다고 여긴다. 그는 탈출이 낙원에서의 삶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여기지만 섬을 관찰한 후 섬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담론과 실상의 괴리를 자각한다. 이는 역으로 조백헌에게 진정한 낙원 ‘소록도’를 조성해야 한다는 욕망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소록도에 부임한 조백헌 역시 천국 담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조백헌에게 소록도가 원생의 천국이라는 담론은 참된 진리이다. 진리의 담론은 다른 담론에 압력을 가해 분할과 배제, 금지를 유도하는 힘이 있다.⁹⁾ 조백헌은 진리가 지닌 권력을 통해 다른 담론을 적절히 생산하고 통제하는 통치자이다. 그렇기에 신념자 ‘조백헌’은 폭력을 제외한 수단이라면 적극적으로 통치 전략으로 활용해 자신의 계획을 완수하고자 한다. 『당신들의 천국』에 여러 차례 언표되는 조백헌의 연설은 그가 담론의 힘을 적절히 활용함을 보여준다. 그가 담론을 권력으로 활용하는 면모는 소록도의 간척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때 잘 나타난다. 그는 간척 공사가 중단될 기미가 보이자 사업의 정당성을 지지할 이야기들을 외부에서 수집한다. 이는 표면적으로 원생들의 동기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면에는 소록도의 낙원 사업을 정당화하여 일정한 강

9) 미셸 푸코, 앞의 책, 19-20면.

제를 부과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소록도의 낙원화를 위한 담론의 두 번째 기능이다.

안에서는 구할 수 없었던 계기가 마침내 밖에서 구해진 셈이었다. 원장은 곧 섬으로 돌아왔다. 소문의 진위를 자세히 따져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소문의 충격이 원생들을 다시 일터로 끌어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해주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것이 비록 원생들을 속이는 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조 원장 처지로는 거기까지 잔신경을 써가며 일을 주지할 수는 없었다. 3천 원생들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그 정도 독단이나 원장으로서의 통치 기교를 사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중략)… 5 정보의 땅을 얻기 위해 여덟 차례의 침하를 겪으면서 아직도 후회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그 3형제의 끈끈하고도 강인한 의지는 섬사람들에게도 상당한 감동을 주는 듯했다. 그러나 장로들은 역시 그뿐이었다. …(중략)…할 수 없었다. 원장은 이제 마지막 처방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마침내 이 사업장을 빼앗아 일을 대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했다(299-300면.)

조백헌은 ‘통치 기교’로서 담론의 권력을 인지하고 그것을 가시적인 실체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정확히 활용하는 통치자이다. 담론의 통제는 언표의 내용에만 근거를 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¹⁰⁾ 삼 형제의 일화가 감정적인 자극에만 그치자 그는 원생들 내면에 잠들어 있는 건강인에 대한 분노를 일깨우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사업장을 뺏으려 한다는 소문을 선택한다. 소문은 말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불분명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통치자 ‘조백헌’은 그의 계획을 위해 ‘소문의 진위’는 신경 쓰지 않고 소문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왜냐하면 담론의 통제에서는 말하는 주체는 배제되고 그 내용만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진리의 생산

10) 미셸 푸코, 앞의 책, 33면.

은 이렇게 다른 담론을 통제하고 그 통치 기제를 정당화하는 권력의 원천이다. 조백헌은 이렇게 담론에 기대어 원생들의 삶에 스며드는 미시권력을 행사한다.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조백헌은 소록도에 주정수의 명령이 도래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의 권력은 간척사업이 원생들의 지상 과제이며 소록도의 낙원화가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조백헌은 인간적 욕망을 지닌 주체에게 합리적인 경계선을 만들어 지배력을 행사하는 근대이성¹¹⁾의 표상이다. 그는 주정수나 사토처럼 원생들에게 사법체계의 폭력을 행사하는 난폭한 주체는 아니다. 그러나 황희백과 이상옥은 오히려 조백헌이 지닌 힘을 경계한다. 그의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권력은 그에 대한 비판과 경계를 상실하게끔 한다. 이로써 원생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조백헌은 원생의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의 의도대로 이끌어가는 주체이다. 그의 권력의 원천인 담론은 입을 통해 더 과급력을 행사한다. 이때 담론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전에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산된다. 이는 타자를 배제하고 분할하는 진리의 담론을 정당화하며 그 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힘을 지닌다. 결국 조백헌이 소록도에 이루려는 것은 천국의 영토화이다. 이는 원생들을 소록도라는 분리된 공간에 정착시켜 그곳에서 이탈하려는 이들의 욕망을 억누르는 것을 뜻한다. 효과적으로 소록도를 영토화하기 위해서는 원생들의 사유체계를 점유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업장을 빼앗으려는 외부 사람들의 이야기는 배반의 과거를 소환하여 소록도만이 원생의 낙원이라는 인식을 강렬히 심는 수단이다. 이러한 사유 이미지는 원생들이 소록도 이외의 삶을 상상하는 것을 차단한다. 즉 천국의 영토화는 사유를 구조화하여 삶의 다른 가능태들을 불가능하게 억누른다. 이렇게 『당신들의 천국』은 담론이 우리 삶의 양태를 고정하고

11) 나병철, 『이청준론-『당신들의 천국』과 권력의 미시물리학』, 『현대문학의 연구』 Vol.9, 1997, 216면.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통치 기제임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러나 강력한 구조는 그것에 균열을 내려는 도전을 끊임없이 받는다. 『당신들의 천국』에서 이러한 탈주의 움직임은 섬을 탈출하는 사건으로 형상화된다.

3. 허상의 담론과 이탈의 움직임

소록도는 '당신들'이 지닌 전염에 대한 공포인자를 한곳에 몰아둠으로써 그 위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해 생산한 산물이다. 소록도는 원생들이 건강인의 불안과 위협어린 시선에서 멀어질 수 있는 정착지이기에 안락한 쉼터처럼 보인다. 이 안락함은 소록도의 규칙과 규정대로 살아갈 때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낙인을 지우고 동일한 인간이 되려는 것은 소록도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욕망이다. 원생이 개별자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협을 무릅쓰고 섬을 나가야 한다. 원생들의 탈출은 원장부임 때마다 발생하는 사건이다. 이 사고는 원장의 부임으로 새롭게 주정수의 명령이 되살아나는 것을 거부하는 움직임이다. 주정수는 소록도의 참혹한 배반사건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원장들은 부임 연설에서 의례적으로 약속하는 천국사업은 원생들이 주정수의 재현을 목격하는 악몽과 같은 사건이다. 이 약속은 소록도가 원생들에게 천국과 같은 안락을 선사할 것이라는 헛된 환상이다. 그러나 원장들은 이것이 헛된 담론임을 인지하지 못하며 오히려 새로운 약속을 통해 원생들의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구조를 견고히 하고자 한다. 소록도의 재건 공약은 원생들을 배제하고 분리하는 권력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시도이다. 구조는 개별적인 대상이나 행위를 중시하기보다는 그것을 하나의 전체로 규정하는 특징을 강조한다. 원생들을 하나의 전체로 묶는 것은 이들이 지닌 병력이다. 이는 소록도를 환자 집단으로 규정하며 이들이 인간적인 욕망을 지닌 개별자들임을 망각하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소록도의 천국화는 이들을 개개의 인간으

로 대하지 않고 환자의 틀에 가두는 것을 뜻한다. 이 강력한 구조는 원장의 부임식마다 되풀이되며 원생들에게 환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진리임을 내면화하게끔 한다. 이렇게 배제의 산물에 순종하게끔 만들어진 원생들은 하나의 커다란 집단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탈출을 시도하는 소수의 원생들은 권력이 설정한 경계를 뛰어넘으려는 자이다. 이들에게 탈출은 자신들의 삶에 한계를 두는 담론의 허상을 깨고 그 구조로부터 이탈하는 시도이다.

섬을 나가고 싶었지만 그것은 환자로서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세상 사람들 곁으로 가서 그들 속으로 아무 스스럼없이 함께 섞여들 수 있기를 원했다. 병을 치료하고 난 환자로서가 아니라, 온갖 인간적인 욕망을 다시 숨 쉬기 시작한 한 인간으로서 바깥 인간들 속으로 자신을 섞으려 섬을 나가고 싶어 한 것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병을 나은 사람이 다만 그 자기 병의 소지(巢地)로부터 멀리 떠나가버리기 위해 섬을 나가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더욱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에게는 이 특별한 처지의 인간 집단을 위해서 특별히 꾸며진 어떤 낙토도 이미 낙토일 수가 없었다. …(중략)… 그것은 탈출이 아니라 한민이 그토록 떠나고 싶어 했던 이 섬과 섬의 운명, 그리고 영원한 문둥이에의 귀의였다. 약물로 검붉게 타버린 그의 모습이 그것을 더욱 잘 실감시켜주고 있었다. 원장이 그걸 이해할 리 없었다. 그는 한민을 위해서라도 똑같은 낙토를 꾸미려고 한 사람이었다. 섬을 나가래도 나가지 않은 사람과, 죽음의 위험까지 무릅쓰가며 바다를 헤엄쳐 나가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 섬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원장이었다. 어디서부터 어째서 그런 배반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원장이었다. 그는 다만 이 섬이 아직은 낙토로 여겨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낙토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해주기만 하면 그런 모순들은 저절로 해소될 줄 믿고 있을 그런 원장이었다. (95-96면.)

도주는 선을 그리는 것이자 탈영토화이다.¹²⁾ 이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며 그 구조를 떠나려는 의지이다. 소록도 탈출은 배제와 분할을 정당화하는 권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는 도주선 그리기이다. 탈주선은 앞에 펼쳐진 무한한 삶의 가능태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이며 그것을 이룩하려는 생성의 힘이다. 탈주의 욕망은 삶을 지배하는 구조가 삶을 극한으로 몰아갈 때 강하게 솟아오른다. 즉 이탈선은 궁지에 몰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며 새로운 삶을 꿈꾸는 질주의 힘이다. 원생들에게 새 원장의 부임은 삶을 극한으로 밀려나도록 하는 계기이다. 원장의 부임 약속은 또 다시 이들의 인간적 욕구를 배제하고 환자의 곁에 붙들어 놓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장에게는 원생을 향한 시혜적인 정책이지만 이는 실상 환자의 불만사항을 최소화하겠다는 기만적인 기획이다. 원장은 탈출에 담긴 원생의 절실한 욕망을 이해하지 못한다. 원생들의 탈출에 담긴 진실에 다가가려면 이들이 지닌 욕망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체는 당위적인 명분을 포기하고 원생들의 인간적인 욕망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주체의 인식 없이 소록도는 언제나 탈영토화의 대상, 즉 난폭한 속박의 구조일 뿐이다.

한민의 자살은 새로운 약속이 탈주하려는 자들에게 어떠한 폭력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한민은 인간으로서 지위를 정당하게 획득하여 섬을 나가고자 노력하는 인물이다. 이를 위해 그는 글을 투고하여 경제적인 자립 능력을 갖추기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 이는 문동이 집단의 일원이 아니라 ‘한민’이라는 한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다. 이는 개별성을 거세하고 하나의 전체를 부과하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도이다. 환자의 곁만 인정하는 소록도는 인간적인 욕망을 저해하는 허상 낙원이다. 한민의 자살은 진정한 낙원으로의 진입이 허락되지 않는 사실

12) 질 들뢰즈/클레르 파르네, 『디אל로그』, 허희정/전승화 역, 동문선, 2005, 71면.

에 대한 절망을 표현한다. 이는 소록도가 원생의 천국이라는 권력의 담론이 ‘당신들’ 속에만 존재하는 환상임을 드러낸다. 조백현의 연설은 허상의 담론이 원생의 삶을 엮매는 현실적인 힘으로 작용함을 다시 일깨운다. 이렇게 담론이 진리라고 생산하는 것은 허상이지만 삶을 제한하고 배제하는 현실의 힘으로 작용한다.

탈출사고와 자살은 구조의 허상을 깨부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들이 도전하는 구조는 너무 거대하고 견고하여 개개의 힘으로 흔들기 어렵다. 이상옥은 한민의 죽음 이면에 놓인 탈주욕망의 좌절과 ‘영원한 문둥이에의 귀의’를 인지한다. 이상옥은 신념에 찬 ‘조백현’이 현 소록도를 주정수 시대로 되돌릴 만한 힘과 욕망이 있음을 알고 경계한다. 이러한 비판적 시선은 선의에 찬 신념과 행동이 삶을 속박하는 억압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상옥의 냉소적인 시선은 허상인 담론이 권력의 힘을 통해 실체화되고 있음을 간파한다. 조백현의 열정은 원생을 그의 의도대로 움직임으로써 천국의 환상을 견고하게 다져진 구조로 생산한다. 이상옥은 그것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다시 소록도를 탈주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섬의 배반을 이용한다. 이는 원생과 원장 모두가 소록도를 지탱하는 담론이 허상이며 그 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상옥은 입원 환자가 아니라 병원 요원이었다. 그는 다른 원생들처럼 고된 노역 때문에 섬을 탈출까지 해나가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 섬을 떠나고 싶으면 그는 언제든지 떳떳하게 나무를 건널 수 있었다. 한테도 그는 그 나무를 건너지 않고 내력 깊은 돌부리 해변가를 택해 차가운 겨울 바다를 건너간 것이었다. 그냥 섬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섬을 버리고 간 또 하나의 ‘탈출 사건’이었다. (364면.)

이상옥은 소록도의 안정적인 구조에 충격을 주기 위해 탈출을 감행한다. 소록도의 환상을 깨뜨리는 시도는 권력의 구조에 균열을 내는 행위이

다. 그는 이 틈새를 통해 소록도를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욕망하는 탈주의 공간¹³⁾으로 바꾸고자 한다. 이상옥의 선택은 인간적인 신뢰를 쌓아가던 소록도의 변화를 허무는 배신이라는 점에서 독선적이다. 그렇지만 이 독선주의는 힘의 횡포를 감시하고 그 경종을 울리는 기능을 한다.¹⁴⁾ 그의 탈출은 섬의 구조를 이탈하여 새로움을 생성하는 탈주선은 아니다. 탈주선은 그들을 억누르는 사유 이미지를 전복하여 새로움을 찾아가는 유목적인 힘을 뜻한다. 그러나 이상옥은 그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원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탈출한다. 즉 그의 탈출은 원생들을 보이지 않게 억누르는 사유 이미지를 폭로하는 시도이다. 이는 배반의 사건을 통해 원생들이 다시 탈주선을 그려가야 함을 일깨우는 데에 목적에 둔다. 이상옥이 배반을 통해 알리려는 것은 소록도와 육지를 나누는 경계 너머의 삶을 꿈꾸는 상상력이다. 이 상상력은 주체의 기획을 거두는 원장의 힘과 그 허구를 현실로 만드는 원생의 힘 모두가 필요하다. 오래된 배반의 상처로 원생들은 이 힘을 기르는 데에 깊은 피로감을 느낀다. 이러한 무력함 속에서도 정치적 상상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꿈이지 않고 발생하는 탈출 사고는 이러한 정치적 상상력의 실천이다. 원생들이 진정한 낙원을 찾기 위해서는 이들이 삶을 꿈꾸고 그것을 실천으로 끌어갈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러나 이 힘은 이들의 삶을 억누르는 구조를 변화하기에 작고 연약하다. 이 미약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원장이 권력의 행사에서 물러나 무위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당신들의 천국』은 조백헌을 통해 도래할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주체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한다. 탈출은 조백헌이 독단에서 물러서기를 바라는 욕망의 발현이지만 조백헌은 주체의 자리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그가 독단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실의 담론을 통해 자기 인식에 다다른 후이다.

13) 양정임, 「당신들의 천국의 공간적 의미와 폭력의 순환구조」, 『어문학』 122, 2013, 565면.

14) 김현, 「자유와 사랑의 실천적 화해」,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9, 231면.

4. 진실의 담론과 자기동일성 허물기

『당신들의 천국』의 중심에 조백헌을 둘 때 부각되는 것은 주체의 변화이다. 조백헌은 1-2부에서는 강고한 근대적 주체이지만 3부에 이르러 자기동일성을 잃고 삶의 미학을 실천하는 주체로 변한다. 이는 주체의 변화가 인간다운 해방이 전제되는 공동체 도래를 위한 시작점임을 의미한다. 즉 『당신들의 천국』이 꿈꾸는 공동체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삶을 개방하는 주체와 그것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실의 담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실의 담론은 삶에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상대에게 잘못을 일깨우고 그가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한 의도를 지닌다. 이 때 담론은 삶의 진실을 일깨우며 주체의 반성을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진실의 담론은 주체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며 자신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진실의 담론은 주체의 동일성에 도전하여 주체를 깨뜨리는 충격이 되어야 한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강고한 주체에 대하여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전달하는 용기이다. 이렇게 진실의 담론은 발화자와 수신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삶을 윤리로 이끄는 기능을 한다. 푸코는 이렇게 진리와 결부하여 자신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을 ‘포이에시스’, 즉 삶의 미학에 해당한다.¹⁵⁾ ‘자기의 포이에시스’는 한 주체가 자신을 윤리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는 주체 자신뿐 아니라 타자에 대한 배려를 동반하기에 바람직하고 윤리적인 삶의 실천에 해당한다.

조백헌은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기보다는 비판자 ‘이상욱’을 통해 그것을 깨닫는다. 이상욱은 서사 전체에서 일관되게 조백헌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위해 주체의 변화가 필요함을 피력하며 주체의 포이에시스를 이끌어내는 진실의 담지자

15) 다케다 히로나리, 『푸코의 미학』, 김상운 역, 현실문화, 2018, 194면.

이다. 2부까지의 이상옥은 조백헌에게 “배배 꼬아대는”(77면.) 말로 대응하면서 원장이 스스로의 허물을 깨닫기 바란다. 하지만 이상옥의 진술은 견고한 주체를 뒤흔들기에는 미약하다. 그것은 조백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체의 동일성을 허물만한 충격으로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상옥의 말은 편지 속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푸코에 의하면, 서한은 발신자를 수신자에게 현전시키는 에크리튀르이다.¹⁶⁾ 서한은 작성자의 내면을 개방하고 노출하여 받는 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진실의 담론이다. 자신의 생각을 활짝 열어 정확하게 전달할 때 그 담론은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를 유도하는 진실로 작용한다. 이상옥의 진술한 고백은 조백헌의 신념이 어떠한 허물로 작용하는가를 전달하는 진실의 담론이다. 진술함의 용기는 그것을 마주하는 자가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이다. 이로써 조백헌은 자신의 신념과 낙원화 사업이 섬을 영토화하고 배제하는 기획이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누구나 오늘의 자기 현실을 최종적이고 불가변의 것으로 살아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현실은 내일 다시 선택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 위에 내일의 선택이 열려 있지 않는 한 그 현실은 누구에게도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선택과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필생의 천국이란 오히려 견딜 수 없는 지옥일 뿐입니다. …(중략)… 형식만 있었을 뿐 원생들의 진정한 선택이 있을 수 없었던 그 마지막 정착지로서의 천국-필생의 천국-그것은 원생들의 천국이 아니라, 다만 그들이 그렇게 믿어주기를 바라면서 거의 일방적으로 그것을 점지해주고 싶어 하신 원장님이나 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섬 바깥에서 이 섬을 저들의 천국이라고 말하게 될 바로 그 사람들의 천국일 뿐인 것입니다.(415-452면.)

16) 다케다 히로나리, 앞의 책, 213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서로에게 결점을 교류함으로써 자신을 털어놓는 행위이다.¹⁷⁾ 이상옥의 편지는 말의 의도를 감추려던 이전의 진술들과 달리 진술한 ‘이상옥’을 현시하기 때문에 조백현을 뒤흔드는 진실로 기능한다. 여기서 이상옥은 소록도를 ‘최종적이고 불가변의 것’으로 고정하려는 강고한 주체를 비판한다. 그는 ‘선택과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원생들의 힘을 기르기 위해 힘을 지닌 주체가 변화해야 함을 알리고자 한다. 조백현의 기획은 원장이 규정한 최종 목표를 향한 동일성의 재현 행위이다. 이 일방적인 계획은 개별성과 차이를 묵살하며 하나의 전체를 위한 ‘천국’을 만들고자 한다. 하지만 ‘원생들의 천국’은 동일성의 구조에서 벗어나 차이를 인정할 때 도래한다. ‘원생들의 천국’은 내일의 선택에 맡겨질 때 도래할 수 있는 낙원이다. ‘내일의 선택’에서 ‘내일’과 ‘선택’이 공유하는 속성은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은 현실태 아래 무한한 잠재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필연적이고 당위적인 가능성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인 현재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알 수 없는 미지를 향해 열려 있다. 무위는 선택의 가능성이 열고 개방의 장을 그대로 두는 생성의 원동력이다. 소록도의 ‘내일의 선택’은 자신의 몫을 마련하려는 주체의 무위에서 시작할 수 있다. 원장이 ‘필생의 천국’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거둘 때 원생들의 ‘내일의 선택’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상옥의 편지는 조백현에게 무위의 주체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이로써 조백현은 타자를 재단하려 한 자신을 반성하며 타자 윤리를 실천하는 윤리적 주체로 변모하게 된다.

소록도로 되돌아간 조백현은 자기의 포이에시스의 실천하는 주체이다. 자기의 포이에시스는 자기동일성을 회복하려고 기회를 염탐하는 주체를 무화하는 고통을 동반한다. 그의 “외로운 침묵”(412면.)과 ‘고목나무 뿌리’는 포이에시스를 실천하는 고통의 깊이를 잘 드러낸다. 그의 침묵은 ‘원

17) 미셸 푸코, 『담론과 진실』, 심세광·전혜리 역, 동녘, 2017, 78면.

생들의 천국을 위해 무위를 실천해야만 하는 고통에서 비롯한다. 침묵해야 할 담론은 자기동일성의 재생과 타자통치를 위한 권력이 될 종류의 것이다. 그의 침묵은 소록도에 내일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무위의 고통이다. 침묵의 깊이를 견뎌내기 위해 조백현은 고목나무를 불로 지진다. 이는 그가 자기동일자로 되돌아가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며 그 고통을 인내하기 위한 행위이다. 한편 조백현이 고목나무가 하나의 예술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뇌한다. 이는 조백현의 삶이 하나의 예술작품, 즉 주체의 포이에시스를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고민과 일치한다. 이는 그의 삶의 미학이 자신과 타자를 향한 윤리적 실천으로 연결되는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주체의 포이에시스는 자기반성과 더불어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타자를 필요로 한다. 타자는 주체가 삶의 미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진실을 일깨워 줄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보니 이정태는 과연 자기 느낌이 틀림없었다. 작자는 바로 이상욱 그 위인임이 분명했다. 이상욱이 마침내 다시 섬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정태가 어리둥절해진 것은 그 상욱의 갑작스런 출현만이 아니었다. 상욱의 출현보다 더욱 이정태를 기이하고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방 안에서 들려 나오고 있는 조 원장의 목소리였다. “……마지막으로 저는 신랑과 신부에게 저 역시 이젠 이 섬사람이 된 도리로 간절한 당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 안엔 그 조 원장 한 사람밖에 다른 사람이 없을 텐데도, 웬 연설조 말소리가 우렁우렁 방문을 흘러나오고 있었다.(490면.)

주체의 포이에시스를 실천하는 길은 매우 험난하다. 무너진 자기동일성은 그것을 다시 쌓아올리기를 계속 시도하기 때문이다. 조백현 역시 삶의 미학을 실천하는 주체로 변모했으나 자기동일성의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조백현의 축사 연습과 이상욱의 귀환의 맞물림은 주체의 긍정적

인 변화를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경계해야 함을 뜻한다. 조백현의 축사에는 두 사람에게 대한 축복보다는 앞으로 일궈내야 할 소록도의 미래가 더 담겨 있다. 이는 결혼식을 발판으로 삼아 소록도의 미래를 기획하려는 욕망의 표현이다. 조백현의 축사연습은 ‘연설조 말소리’로 극적으로 연출하는 일인극과 같이 그려진다. 이는 그동안 억누르고 무너뜨렸던 동일자의 욕망이 솟아나는 기이한 장면이다. 조백현은 축사를 통해 미완이던 절강체를 완성하고자 한다. 이는 조백현 내면에 꿈틀거리며 회복하기를 기다리던 자기동일자의 욕망이다. 섬에 귀환한 이상욱은 이를 예리하게 포착한다. 이상욱은 조백현의 축사 연습을 지켜보며 “알 수 없는 미소”(495면.)로 응대한다. 이는 그가 허물어진 주체 틈새로 새어나오는 동일자 욕망을 발견했음을 의미한다. 이상욱의 귀환은 주체가 긍정적으로 변하더라도 그것을 의심하고 비판해야함을 알리기 위한 장치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상욱의 되돌아옴은 주체의 포이에시스를 끝까지 밀고가기 위해 그 욕망을 경계할 진실의 담론이 옆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판의 시선은 『당신들의 천국』이 긍정적인 주체를 통해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는 낙관적 이상으로 오인할 소지를 줄이기 위함이다.

『당신들의 천국』은 도래해야 할 공동체를 꿈꾸며 그 사유를 실험하는 소설이다. 그렇지만 소설에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내거나 그것의 도래로 결말을 내리지 않는다. 다만 도래할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주체의 윤리적 삶의 형태와 경계의 필요성을 보여줄 뿐이다. 이는 공동체의 이상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의 다양한 잠재태를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신들의 천국』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공동체를 위해 주체가 실천해야 할 삶의 윤리에 주목한다. 견고한 주체가 확고한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할 때 그것은 그 구조를 전복하려는 시도마저 무화하는 난폭함을 지닌다. 확고한 공동체 이상은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억압하기에 무너져야 할 지대이다. 이러한 견고함이 허물어진 지대에서 공동체의 미래가 무한한 생성 속에서 도래할 수 있다. 공동체의 미래를 꿈꾸

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주체의 포이에시스이다. 이는 주체와 타자 상호의 개방을 존중하는 윤리의 실천이자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삶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신들의 천국』은 주체가 삶의 미학을 실천함으로써 도래할 우리들의 천국을 꿈꾼다.

5. 결론

지금까지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담론과 주체의 관계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살펴보았다. 『당신들의 천국』은 조백헌을 서사 중심에 두어 도래해야 할 공동체를 위한 주체의 역할과 그 윤리적 실천을 사유한다. 조백헌은 그가 지닌 주체관에 따라 담론의 양가적인 힘을 활용하는 면모를 보인다. 1-2부의 조백헌은 견고하고 독단적인 주체이다. 이때 조백헌은 그가 참으로 여기는 진리를 위해 담론의 권력을 활용하며 그것이 세우려는 질서를 강화한다. 그는 섬의 실상과 천국 담론의 괴리를 인지하고도 그가 참이라고 여기는 천국 담론을 강화하기 위해 섬을 재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백헌은 그의 임무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담론을 선택하여 생산하는 면모를 보인다. 소록도 탈출사고나 한민의 자살은 권력의 담론이 생산하는 천국의 이미지가 허상임을 일깨우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견고한 주체는 전복의 시도를 무화하고 그가 세우려는 질서를 더 강화한다. 이상옥은 주체와 담론이 지니는 위협적인 결합을 비판하는 자이다. 이상옥의 탈출은 그 구조에 균열을 냄으로써 원생들이 담론의 허상을 일깨우려는 의도를 지닌다. 또한 이상옥은 편지를 통해 그가 비판하고자 한 주체의 모습을 진솔하게 전달한다. 이는 조백헌에게 자기 인식과 자기 배려를 이끌어내는 진실의 담론이다. 이로써 3부의 조백헌은 강력한 주체의 위치를 허물고 자기의 포이에시스를 실천하는 윤리적 주체로 변모한다. 무위를 행하는 삶의 미학의 어려움은 조백헌의 광기와 예술관을 통해 나

타난다. 이러한 조백헌의 변화는 도래할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긍정적인 주체의 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상옥의 귀환은 긍정적 변화 이면에 꿈틀거리는 동일자 욕망을 끝까지 경계해야 함을 일깨운다.

이와 같이 『당신들의 천국』은 독단 속에서 하나의 전체라는 공동체가 가질 위험을 그리면서 도래해야 할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 미래의 공동체는 자유와 사랑 속에서 도래해야 하지만 그것의 바람직한 형태는 미완으로 존재한다. 위험하면서도 필요한 공동체가 이상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끌어 갈 주체의 모습을 실험할 수밖에 없다. 조백헌은 이러한 사유의 실험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다. 1-2부의 조백헌은 근대적 주체가 공동체를 기획하고 권력을 행사할 때 지니는 위험을 보여준다. 이때의 조백헌은 허상과 같은 진리를 구조화하고 참으로 만들기 위해 담론의 힘을 이용한다. 하지만 3부에서 보이는 조백헌의 변화는 인간다운 삶의 해방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주체의 이상적인 형태를 드러낸다. 삶의 개방과 자기 포이에시스의 실천은 모두의 자유를 용인하는 공동체 도래를 위해 필요한 주체상이다. 또한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 그것을 비판하고 반성할 수 있는 진실의 담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당신들의 천국』은 담론과 주체의 역학 속에서 도래할 공동체를 사유한다. 이 규정할 수 없는 공동체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서 삶의 다양한 형태를 개방한다. 이것이 『당신들의 천국』이 꿈꾸는 ‘우리들의 천국’이며 자유와 사랑이 실천되는 공동체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텍스트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문학과 지성사, 2017.

2. 논문

- 김근호, 『이청준 소설 『당신들의 천국』의 소통 윤리』, 『구보학회』 Vol.13, 2015, 177-205면.
- 김현생,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정치적 알레고리 읽기』, 『한국사상과 문학』 63, 2012, 83-105면.
- 나병철, 『이청준론 『당신들의 천국』과 권력의 미시물리학』, 『현대문학의 연구』 Vol.9, 1997, 213-247면.
- 류양선, 『낙원에의 꿈과 관념의 정치학-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론』, 『성심어문논집』, Vol.20, 1999, 59-80면.
- 마희정,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서사구조분석』, 『현대소설연구』 21, 2004, 323-345면.
- 문재호,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동일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1997, 371-400면.
- 박미정, 『『당신들의 천국』에 부재한 유토피아』, 『청람어문교육』 Vol.28, 2004, 339-363면.
- 배경열,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알레고리 고찰』, 『배달말』, 2010, 143-168면.
- 설혜경, 『〈당신들의 천국〉에서의 이웃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64, 2016, 251-286면.
- 양정임, 『당신들의 천국의 공간적 의미와 폭력의 순환구조』, 『어문학』 122, 2013, 553-573면.
- 홍흥기, 『소설적 자유와 욕망의 실천가능성-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Vol.51, 2012, 439-457면.

3. 단행본

- 권오룡 엮음,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9.
- 다케다 히로나리, 『푸코의 미학』, 김상운 역, 현실문화, 2018.
- 미셸 푸코, 『담론의 질서』, 이정우 해설, 새길, 2011.
- 미셸 푸코, 『담론과 진실』, 심세광·전혜리 역, 동녘, 2017.
- 질 들뢰즈,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동욱·이충민 역, 민음사, 2018.
- 질 들뢰즈/클레르 파르네, 『디אל로그』, 허희정/전승화 역, 동문선, 2005.

<Abstract>

Power of discourse and Poiesis of subject —The study on “Your Paradise”

Lee, Ha-eun

The intention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ourse” and “subject” based on the novel “Your Paradise.” This work describes a matter of subject to form ideal community through Jo Baek-Heon. Jo Baek-Heon, a director of Sorok-do, has changed from preemptory subject to considerate subject. This change is related to powers and functions of discourse. In this work, discourses could be a source of social power to rule for another and exclude the inmates of Sorok-do, who have leprosy. Otherwise, it could be an important way for people to behave ethically. These function of discourse could be a power to make our lives suppressing or free. The author describes these two possibilities through Jo. At the beginning of this work, Jo is a powerful and high-handed subject to rule inmates by using the power of discourse, however, he finally identifies his errors and begins to care himself and others. This change occurs in the letter sent from Lee Sang-Wook, who looks Jo warily. Because It delivers the truth of Sorok-do to Jo, Jo could be self-aware and self-care. It makes Jo to practice self-poiesis for coming community. Practicing self-poiesis is hard to achieve, because of a desire to rebuild self-identification. To be cautious about this desire, the author sets a critical perspective consistently into “Your Paradise.” It shows to reflect oneself and to practice ethical behavior persistently for ideal society and freedom.

Key words: Discourse, Technologies of the self, Rule of conduct, Subject,
Coming community, Self-poiesis

투 고 일 : 2019년 7월 29일

심 사 일 : 2019년 8월 19일-9월 8일

게재확정일 : 2019년 9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9년 9월 26일